

“예수님이 오신 이유”

마태복음 1:18-25

예수님의 탄생은 미리 예언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 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성경은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 7:14)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을까요?

1.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마 1:21)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에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고, 자범죄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짓는 죄를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원죄는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았다 해도 유전적인 죄를 누구나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모든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며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죄의 경중이 다를 뿐 누구나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도 이런 은혜를 담고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확연히 차이가 나는 점은, 구원을 얻기 위해 어떤 도덕적인 훈련과 명상, 고행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빈손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2.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일 4:10)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 명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던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 막던 모든 장막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엡 3:12)

하나님께서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하나님 안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보좌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3.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 1:12)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여 받아들이는 사람, 즉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됩니다.

둘째, 아담에게 주신 복이 회복이 됩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복을 사탄에게 넘겨 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기에 넘겨준 것을 다시 돌려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 3:13-14)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 12:2)

바로 자신 스스로가 복 그 자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그의 부모가 유학생이든, 관광중에 잠시 방문한 사람이든, 그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태어난 그 자체로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권한을 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가 어떤 절망적인 삶을 살았던지, 어떤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던지, 집안의 신앙 배경과 상황을 가졌던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접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세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1. 죄의 문제를 하시기 위해서
2.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3.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분명한 목적을 위해 이천년 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은 단지 선물을 주고 받는 정도로 가볍게 여기며 보낼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날은,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놓는 매우 특별하고 의미있는 날이며 감사하며 축하해야 하는 복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고 묵상하는 성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눔의 시간

1.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세가지로 말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공감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2. 내가 경험했던 수많은 크리스마스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는 무엇이었는지 왜 가장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가 되었는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3.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기억하며 묵상하는 것은 비단 성탄절에만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삶을 살도록 함께 결단하며 기도로 마무리해 봅시다.